

# 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36.7%'...진보층 이탈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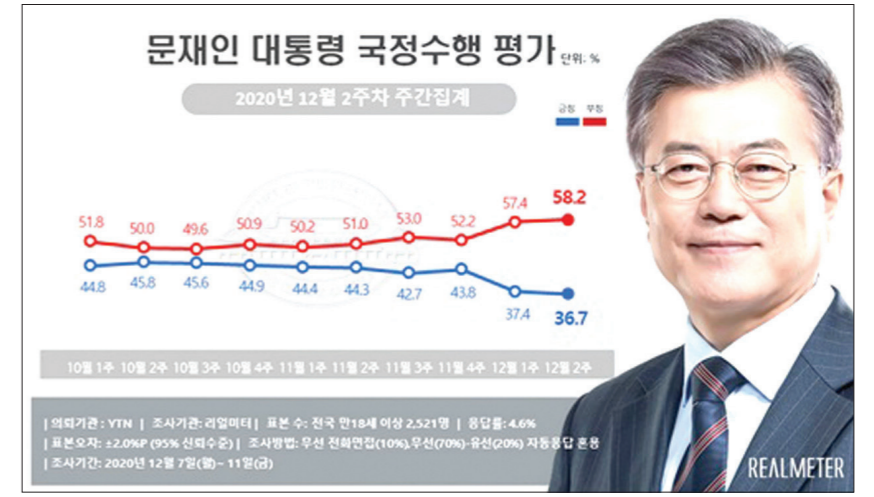
긍정평가 0.7%p 내려...부정평가 0.8% 올라 58.2%  
진보층 지지층 4.2%p 감소, 59.6%...2주 연속 감소  
“국회 공수처 강행 등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 불만”  
정의당 지지층 11.8%p 감소...중대재해기업법 영향  
민주당 30.8%·국민의힘 31.6%...오차범위 이내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한 가운데,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의 이탈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 2주차 주중 집계(7일~11일)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내린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취임 후 역대 최저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8.2%(매우 잘못함 45.9%, 잘못하는 편 12.3%)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차이는 20.8%포인트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1%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7일 34.6%로 출발, 8일 36.4%과 9일 38.2%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일 36.2%과 11일 36.1% 등 주 후반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상승했다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 처리에 강행 논란이 일 정도로 속도를 낸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진보층(4.2%p ↓, 63.8%→59.6%, 부정평가 34.8%) 지지율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0% 아래를 기록했다. 전주 8.2%포인트 감소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다. 중도층(3.2%p ↓, 37.1%→33.9%, 부정평가 62.1%)도 소폭하락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의 강행 모습이 비춰지는 등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서 지지층이 뒤 돌아섰다 게 리얼미터 측의 분석이다.  
중대재해기업법 처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 지지층(11.8%p ↓, 40.1%→28.3%, 부정평가 66.7%)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지난주 국회 상황으로 수면 아래에 있던 윤 총장의 정계위원회 절차가 15일 재개된다”며

“정계위 결과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4인 가족’ 발언은 조사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30.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0.3%올라 31.6%로, 양당의 격차는 0.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을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7.0%p ↑)·호남권(2.1%p ↑)·서울(2.0%p ↑), 60대(6.4%p ↑)·30대(4.7%p ↑), 진보층(2.3%p ↑), 가정주부(2.6%p ↑)·사무직(1.4%p ↑)에서는 상승했고, 40대(3.9%p ↓), 중도층(1.6%p ↓), 학생(6.7%p ↓)·노동직(2.9%p ↓)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부산경남(4.4%p ↑), 20대(3.0%p ↑)·50대(2.9%p ↑), 진보층(2.9%p ↑)·중도층(2.2%p ↑), 노동직(4.6%p ↑)에서는 올랐으나 대구경북(5.4%p ↓)·충청권(3.4%p ↓), 60대

(7.4%p ↓)·70대 이상(2.5%p ↓), 보수층(2.0%p ↓), 무직(1.9%p ↓)·자영업(1.4%p ↓)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0.3%포인트 하락한 7.5%를, 열린민주당은 0.6%를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4.4%, 기본소득당은 0.1%포인트 오른 0.8%, 시대전환은 0.3%포인트 내린 0.6%, 기타정당은 전주와 같은 1.5%였다.  
무당층의 비율은 1.4% 내린 16.6%



## 野 “윤미향, 와인파티 사과문도 허점...사퇴해야”

“길원옥 할머니 94번째 생신?...정의연 기록으로 올해 93세”  
국민의힘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와인 모임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윤미향 의회는 즉각 해명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들과 와인을 곁들여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매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고 적었다. 윤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인원 전원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이 그토록 이용했던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핑계로 ‘노마스크 와인파티’를 벌인 윤 의원의 사과문조차 허점과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윤 의원은 사과문에서 ‘12월7일 월요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라고 했지만 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의 와인파티가 윤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 비판까지 제기하며 아무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윤 의원은 진술한 사과와 함께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3일 논란이 일자 해당 사진을 SNS 계정에서 삭제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與, 코로나 ‘방민경’ 당력 집중...거리두기 상향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조기화 최대화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폭발적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경제·민생, 이른바 ‘방민경’에 당력 집중을 선언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고 밀폐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겨울철 특성을 고려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방역에 쏟아야 할 때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전력 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자가검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떻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신속 항원검사법을 부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신속 항원검사를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K방역의 성과와 자부심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 정부와 국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방역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생계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 계층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1월 중으로 100% 지급 완료를 독려키로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은 도입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종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발맞추기를 하며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